

# 광주 방문 이상호 “수도권 중심 반도체학과 육성, 우려”

## 광주·전남 대학총장단과 ‘국가균형발전·인재육성’ 간담회 수도권 중심 전문 인재 육성 성토... “당 차원 방안 찾겠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정·학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모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통 공약으로 내놓고 추진해왔지만 추진 정도와 정책 내용의 적실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대선 때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내놨던 때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을 공언했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과라면 몰라도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수도권에 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관련 산업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발상이 반도체학과 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정책 전체를 그렇게(수도권에)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며 어렵다고 이야기 하니 오히려 강압적으로 다그쳐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만드는 절차의 문제도 반교육적이다”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실정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협력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보겠다”며 “민주당이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보

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석열 정부는 아마 교육과 산업을 통해 균형 발전 정책을 펴 ‘균형발전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호남 반도체 동맹 구성과 광주·전남 공동으로 300만 평 규모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을 약속드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 “광주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고, 전남도와 전북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전남도와, 각 대학과 함께 수도권 집중,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인 인재 양성 문제와 산업 고도화에 차곡차곡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지역 대학총장들도 “첨단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서만 육성하는 것은 지방대 소멸을 넘어 지방 경제 위축과 지역 소멸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의 대응이라지만, 대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정·대학 총장단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13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학의 정책·재정적 측면을 과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의 목소리도 크다” 등 의 의견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과 광주·전남도, 광주·전남 지역 대학 총장단이 참석했다. 정승호기자

## “시장님 당황하셨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직원들과 첫 소통

### 주택정책·인적관리·직원과의 소통 방안 등 질문·답변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 참석, ‘시장님 당황하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은 민선8기 첫 직원 정례회를 기존 당부사항 전달 방식에서 탈피, 질문과 답변이 있는 토크쇼로 대신했다. 강 시장은 5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6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 당황하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첫 정례회를 가졌다.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는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진행한 MZ세대 공직자들과의 도시락 토크에 이은 두 번째다.

강 시장은 이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은 물론 민선8기 시정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패널리스트로 자원한 4명의 공직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강 시장이 즉석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토크 사회자로 나선 나우철 주무관은 “국

회의원들이 방송에서는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도 여의도 술집에 가서는 서로 형님·동생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국민의힘 의원 누구와 친분이 두터운지” 등을 물었다.

강 시장은 “정당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다 보니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대의를 위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민선 8기 강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강 시장은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6%에 달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주택에 비해 실제 계획된 공급량이 훨씬 많은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주택 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과 약속한 주택문제도 풀어나가는 등 주택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시장의 평소 인적관리, 직원들과의 스킨십 확대 등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 시장은 직원들과의 토크가 끝난 뒤 비즈니움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광주자치경찰 브랜드 공모전 수상자, 이달의 공무원 등 시정발전 유공자 17명에게 표창을 건넸다. 이슬비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미래 산업구조 획기적 전환 시킬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전남의 미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민선 8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일반인들은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만 떠올리는데 이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국한된 것이며, 전남이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는 중소기업도

진출 가능한 ‘시스템 반도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로드맵 제시는 시스템 반도체가 발전 전망이 밝고 향후 정부의 반도체 집중육성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중소기업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이와 연계한 전후방 산업 파급력까지 고려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에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를 하루 빨리 조성해 기업들이 찾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행정사,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선정

### 4대 보험 등 국민연금 보험사무업무 대행 강 위원장 “행정사 활동 저변확대에 최선을”



대 보험과 같은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는 업체를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기관’이라 하는데 기존에는 전문자격사 중 회계사·세무사·노무사만 가능했다.

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노동특위)는 행정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인 국민연금EDI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사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노동특위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EDI 업무대행기관으로 행정사를 추가하면서 행정사도 국민연금 보험사무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행할 수 있다. 단, 고용산재는 행정사 법외인 대행 가능하다.

국민연금EDI란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를 위임받아 각종 신고 및 신청·조회업무를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말한다. 4

이런 대행기관 선정은 지난해 1월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대한행정사회 노동특위(위원장 강민제·사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강민제 대한행정사회 노동특위 위원장은 “행정사 개인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행정사의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Inno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녹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